

##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 사사기 11:29-33

29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뮌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 입다의 서원

입다와 암몬 왕 사이에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한 논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싸울 일만 남았습니다. 전쟁을 앞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입다는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서 길르앗, 므낫세, 미스베를 돌며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전쟁은 입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암몬에게 빼앗겼던 길르앗의 여러 성읍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더할 나위없이 만족스러웠지만 문제는 입다의 서원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무남독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서원대로라면 입다는 자기 외동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는 여러 논쟁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 헌신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자적으로나 정황으로나,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여호와의 영

첫 번째 근거는 입다가 한 서원은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입다가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그”가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다면 그 사람을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 헌신하도록 하겠으며 동물이 먼저 나올 경우에는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민수와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입다가 하나님께 서 율법으로 인신제사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다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이뤄졌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입다가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서 딸을 번제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서원을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바쳤는지의 여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과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18-24입니다.

❖ 사무엘상 19:18-24

18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웃으로 가서 살았더라

19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웃에 있도다 하매

20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에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웃에 있나이다

23 사울이 라마 나웃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웃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라마나웃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려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잡으라는 다윗은 잡지 않고 예언을 합니다. 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된 후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무엘 앞에서 별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간 일은 명백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입다에 앞서 사사로 부름 받은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자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는 삼손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드러난 삼손은 행실은 도저히 온전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도 얼마든지 잘못된 서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결코 잘못된 서원을 할리가 없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사사기를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6문의 답).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로써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아는 상태에서 사사기를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를 예수님이나 사도와 같이, 성령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만한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호흡”, “여호와와 영”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어떤 능력처럼 묘사됩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감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위격에 대해서 끊임 없는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써의 성령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를 거쳐 381년에 있었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에야 확정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과 같이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을 성자 하나님의 시대, 지금을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나누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 성령님의 역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이든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성부는 그 계획하심을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완성하십니다. 성부는 복음을 주시고 성자는 복음이시며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평일에 저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유독 제 얼굴이 예배 때만 되면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배 때마다 화장을 하고 강대상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강대상에 올랐을 때만 제 얼굴에서 후광이 비추는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눈이 예배 시간에만 유독 밝아져서 평상시에는 몰라보던 제 얼굴의 광채를 알아보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른 아닌 강대 상 위에 있는 조명 때문에 예배 중에 여러분들은 제 얼굴의 광채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 껍데기에 성자의 영이 임함으로 메시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택하신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입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입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 선택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입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이뤄졌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요청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만큼 간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졌음을, 성령께서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 잘못된 서원을 한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 거짓 선지자

요한일서 4:1입니다.

### ❖ 요한일서 4:1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신령한 말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보이는 신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거짓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영지주의자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님.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거짓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말로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까지 행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입다나 사울처럼 온전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신령한 말을 하거나 성령을 힘입은 것과 같은 능력이나 은사가 드러났을 때,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신령해 보이는 말과 행동들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조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도시에 두 교회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과 교리에 충실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는 오락가락하고 교리에서도 자주 벗어나는데, 손만 얹어도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은사가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요? 어느 쪽이든 건물있는 교회를 선택하겠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비슷한 규모라면 말씀 사역보다는 은사 사역에 강점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은 몰립니다. 그 교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입다나 사울과 같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된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주된 사역은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령의 은사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선포되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맺히면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병이 낫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그것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십자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도하지 못하고, 복음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과 복음 안에서 허락되는 영생을 소망하기보다는 현세적인 성공과 건강과 부요에 집착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주목 받고 영광을 차지하며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다른 사역자나 신자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령 충만한 성도

베드로전서 4:12-14을 읽겠습니다.

### ❖ 베드로전서 4:12-14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결과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도 위에 임할 때에 성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시험으로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하



심으로써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생의 소망이 허락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잠시 머물 세상에서 누릴 성공과 안전과 부요함에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거쳐야 할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26입니다.

❖ 요한복음 14:26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과 같은 계시를 받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특별히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으로 역사하기 보다는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배하여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성령의 열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별, 기쁨, 순종**

요한의 권면에 따라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말을 듣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난다해도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지, 주의 몸 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예수님으로 인해 치욕을 당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위에 계심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생각이나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기로 결심한다면, 내가 결심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신 적이 있나요? 그 오해는 어떻게 바로잡혔나요?
2. 영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여호와와 영이 임한 사람이 잘못된 서원을 할 리가 없다’는 편견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신 경험이 있나요?
3.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겨냈거나,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옳은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나요?